

특히 고객관리 차원에서도 파격적인 감동서비스만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대응책으로 행정당국에서 감독 및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제1종 어항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수산청 감독관을 상주시켜 어항을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금후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어민 의식구조개선으로 환경오염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선진국민으로서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야 하겠다.

그때 비로소 건전하고 살기 좋은 어촌사회가 조성되리라 확신한다.

어촌지역의 생활여건이란 도시와 비교할 때 매우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어업종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과소화 고령화되는 상태에서 활력의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인들에게는 매우 좋은 자연경관의 운치를 어항의 장소에서 접하는 장기적인 이용도가 크게 요청되는 바, 어항의 생활도로나 녹지·광장등 부대기능시설을 신설, 어항해양 및 배후 어촌지역의 생활관련시설등을 정비 및 확충함으로써 쾌적하고 운치있는 어항환경을 조성시킬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계획으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시책이 이룩되도록 정부의 배려와 수산유관기

관이 어항가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위치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바다를 살리고 어항을 가꾸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어민의 소득원인 바다를 간척사업등으로 매립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농민의 쌀이 남아도는데 바다를 매립한다는 건 어민에게는 생업을 가로막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전국 어민이나 수산관계인 아니 전 국민적으로 어항관리의 철저와 바다오염방지등 어항을 가꾸고 더욱 푸르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

기획특집

어항관리

관리소홀피해 어민이 제일 커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형구

〈강구수협 조합장〉

어항 시설물 하나 하나가 내것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파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이 우리 선조에게
내려준 어항을 깨끗하게 이용하고 깨끗하게
물려 줘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어항이란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항해하고 어로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든 선박들에게

어머님의 품속같이 아늑하고, 포근한 나의 집 안방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어민 모두는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지금까지 습관적인 생활 속에서 70년전 일제때 건설이 된 3개단 재래식 물양장인지라 현대식 어선 세력에 걸맞지 않은데 이를 사용하고 있는 어민들이 불편하게 이용하면서도 어항을 아끼고 싶은 눈길 이 돌려 질런지 궁급하다.

주로 어선이 이용하는 이곳 강구항은 70년전 건설 당시만 하더라도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의 규모는 평균 10톤 미만이었으나 현재의 어로활동은 옛날과 다르다. 당시 연안어업에서 현재는 현대화된 장비로 근해와 원양으로 어로활동을 하는 100톤 규모의 선박 100여척이 동시에 정박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어항은 특정된 지역 형편에 맞게 건설되어야 하며 선박 규모에 걸맞게 점진적으로 개 보수가 이루어 져야만 우리 어민들이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항상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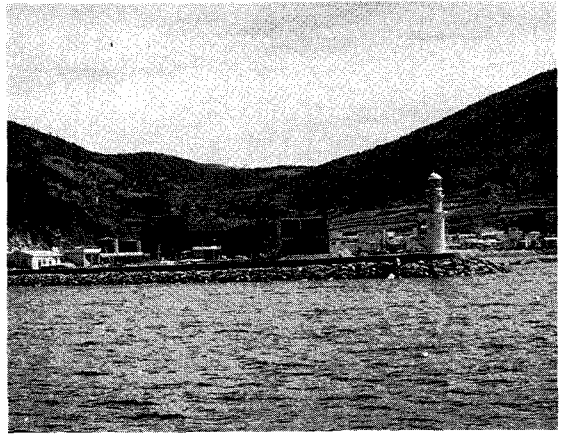
그러나 어느 항구의 어항보다 계단식 어항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선박이 대형화되고 선박의 숫자는 늘어났으나 어항은 건설 당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연중 몇 차례씩 내습하는 태풍 때마다 1시간이상 항해를 하여 인근 포항으로 피항을 해야하므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연간 업청

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어민들이 이렇게 낙후된 시설물을 이용함으로써 피해를 봄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높여야 하고 원성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연 어항 관리는 누가 해야 하는가? 나는 바로 우리 어민들이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충분한 예산 배려로 지역실정 및 선박의 정박 규모에 맞도록 개 보수하여 줌으로써 우리 어민들이 이를 이용함에 있어 어항에 대한 어민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관할 행정 기관에서도 수시로 어항 시설물에 대한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여론을 청취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장래에 대한 이용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관계 행정 기관과 일선 수산업 협동조합이 주관이 되어 이를 이용하는 어민은 물론 인근 주민에 대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어항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어항의 보호 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어항주변에 우후 죽순처럼 늘어난 폐수 방류 업체는 물론 마구잡이 식으로 방류되는 생활쓰레기 오패수는 마치 지역 주민들이 종말 처리장 내지 하치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루 빨리 굳어가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일깨워 줌이 문제중에 문제점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많은 선박들이 입출항을 하게되고 어획물의 생산을 증가시켜 어민소득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어항 시설물 하나 하나가 내것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파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이 우리 선조에게 내려준 어항을 깨끗하게 이용하고 깨끗하게 물려 줘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어촌에 태어나 어항에 몸가누며 살고 있다면 내집처럼 너나 할것 없이 우리가 다같이 관리할 책임을 지자. ㉠